



【문제 1】 아래의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십시오.(50점)

(가) 철학자들 중에는 쓰기와 읽기에 대하여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책을 멀리하고 책을 통해 얻은 지혜는 현실과는 거리가 먼 가짜라고 생각하였다. 책에 대한 이러한 태도의 근원에는 플라톤이 있다. 플라톤은 글쓰기에 대한 혐오감을 누구보다 분명하게 표현한 철학자였다. 플라톤이 글쓰기 또는 ‘쓰인 글’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플라톤은 문자가 언제나 그렇게 좋은 것만이 아님을 강조한다. 그는 살아 있는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암송하여 자기 것으로 내면화했을 때 참된 지혜에 이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문자 때문에 기억은 점점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망각과 상실이 늘어날 것을 염려한 것이다. 플라톤은 문자로 쓰인 텍스트는 ‘생생하고 혼이 깃든 말(진리)’의 복사에 지나지 않으며, 내면적 정신의 외화(外化)에 불과한 것으로 여겼다. 따라서 문자로 된 기억에는 정신의 특성인 내면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 플라톤에게 있어 앎이란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앎의 주체와 앎의 대상이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일, 즉 ‘자기 현존’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문자와 문자로 쓰인 텍스트에 의존하는 것은 기억을 통한 능동적인 자기 현존을 저해하고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나) 제작년이던가, 여름날에 있었던 일이다. 그날도 여름 옷가지를 빨아 다리고 나서 노곤해진 몸으로 마루에 누워 쉬려던 참이었다. 팔베개를 하고 누워서 서까래 끝에 열린 하늘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모로 돌아누워 산봉우리에 눈을 주었다. 갑자기 산이 달라 보였다. 하, 이것 봐라 하고 나는 별떡 일어나, 이번에는 가랑이 사이로 산을 내다보았다. 우리들이 어린 시절 동무들과 어울려 놀이를 하던 그런 모습으로. 그건 새로운 발견이었다. 하늘은 호수가 되고, 산은 호수에 잠긴 그림자가 되었다. 바로 보면 굴곡이 심한 산의 능선이 거꾸로 보니 훨씬 유장하게 보였다. 그리고 숲의 빛깔은 원색이 날날이 분해되어 멀고 가까움이 선명하게 드러나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랐다. 나는 하도 신기해서 일어서서 바로 보다가 다시 거꾸로 보기를 되풀이했었다. 이러한 동작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다면 필시 미친 중으로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는 새로운 사실을 캐낼 수 있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람을 대하거나 사물을 보고 인식하는 것은 틀에 박힌 고정관념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알아 버린 대상에서는 새로운 모습을 찾아내기 어렵다. 아무개 하면, 자신의 인식 속에 들어와 이미 굳어 버린 그렇고 그런 존재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걸 얼마나 그릇된 오해인가. 사람이나 사물은 끝없이 형성되고 변모하는 것인데. 그러나 보는 각도를 달리함으로써 그 사람이나 사물이 지닌 새로운 면을, 아름다운 비밀을 찾아낼 수 있다. 우리들이 시들하게 생각하는 그저 그렇고 그런 사이라 할지라도 선입견에서 벗어나 맑고 따뜻한 ‘열린 눈’으로 바라본다면 시들한 관계의 틀에 생기가 돌 것이다.

㉡ 내 눈이 열리면 그 눈으로 보는 세상도 열리는 법이다. 그 어떤 고정관념에도 사로잡히지 말고 허심탄회한 빈 마음으로 보라.

(다) 노인 목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 노인이 내게 무얼 설명하면서 땅바닥에 집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에서 내가 받은 충격은 잊을 수 없습니다. 집을 그리는 순서가 판이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붕부터 그리는 우리의 순서와는 거꾸로였습니다. 먼저 주춧돌을 그린 다음 기둥, 도리, 들보, 서까래, 지붕의 순서로 그렸습니다. 그가 집을 그리는 순서는 집을 짓는 순서였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그림이었습니다. 세상에 지붕부터 지을 수 있는 집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붕부터 그려 온 나의 무심함이 부끄러웠습니다. 나의 서가(書架)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낭패감이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책을 읽다가 ‘건축’이라는 단어를 만나면 한동안 그 노인의 얼굴을 상기합니다.

차치리(且置履)라는 사람이 어느 날 장에 신발을 사러 가기 위하여 발의 크기를 본으로 떼었습니다. 이를테면 종이 위에 발을 올려놓고 발의 윤곽을 그렸습니다. 한자로 그것을 ‘탁(度)’이라 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가 장에 갈 때는 깜박 잊고 탁을 집에 두고 갔습니다. 신발 가게 앞에 와서야 탁을 집에다 두고 온 것을 깨닫고는 탁을 가지러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제법 먼 길을 되돌아가서 탁을 가지고 다시 장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장이 파하고 난 뒤였습니다. 그 사연을 듣고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탁을 가지러 집까지 갈 필요가 어디 있소. 당신의 발로 신어 보면 될 일이 아니오.”

차치리가 대답했습니다.

“아무려면 발이 탁만큼 정확하겠습니까?”

주춧돌부터 집을 그리던 그 노인이 발로 신어 보고 신발을 사는 사람이라면, 나는 탁을 가지러 집으로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탁(度)’과 ‘족(足)’이 뒤바뀌어 있는 우리의 사고를 다시 한번 반성케 하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는 모두 인간의 ‘앎’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제시문 (가)의 ㉠에 나오는 ‘자기 현존에 이르는 앎’이 무엇인지를 제시문 (다)의 내용을 통해 설명하고, 제시문 (나)의 ㉡에 나오는 ‘고정관념을 벗어난 열린 눈’을 어떻게 하면 지닐 수 있는지를 제시문 (다)의 내용을 통해 설명해 보시오. (1,000자 내외)

[문항해설]

(1) 인문계열 <문제1>은 고등학교 <국어>의 '문학의 갈래: 교술', '정서를 표현하는 글쓰기';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의 '성찰과 정서 표현을 위한 글'; 고등학교 <독서>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 '인문예술분야의 글 읽기';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의 '서양윤리사상: 덕있는 삶과 행복'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적절히 변용하였다.

(2)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올바르게 읽고 쓰기'와 '현대 윤리와 사상' 등을 바탕으로, 학생이 문제가 요구하는 내용을 논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출제되었다. 출제자가 의도한 검증 사항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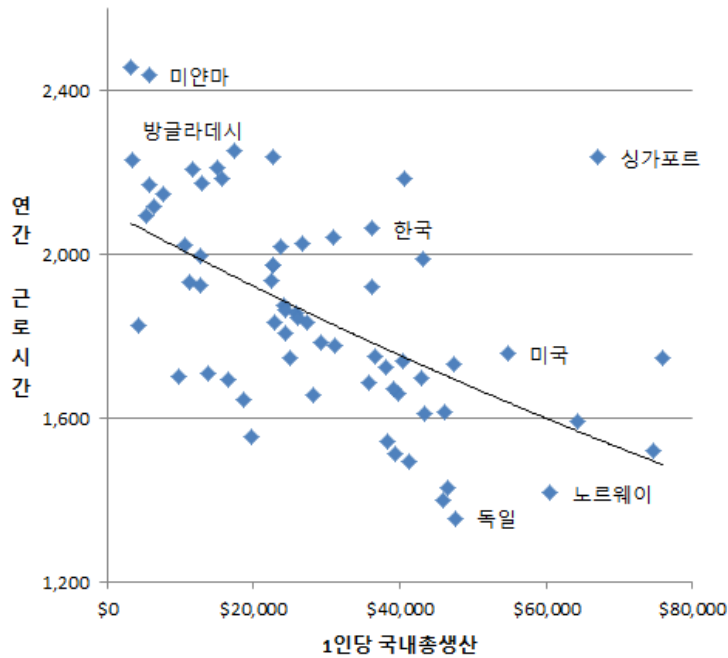
- 1) 제시문의 내용을 정확히, 그리고 추론적,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는가?
- 2) 제시문 (가)는 플라톤의 '앎(인식)'에 관한 철학 에세이다. 학생이 제시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독해력이 있는가? 제시문(가)의 핵심 내용을 제시문(다)의 내용에 적절히 적용하여 서술할 수 있는가?(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 창의적 읽기 능력 및 쓰기 능력)
- 3) 제시문 (나)는 '고정관념'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물과 인간을 열린 눈으로 보기를 제안하는 에세이로서, 학생이 이 글을 정확히 읽고 그 주제와 의미를 추론할 수 있는가? 아울러, 제시문 (나)의 핵심 내용을 제시문(다)의 내용에 적절히 적용하여 서술할 수 있는가?(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 창의적 읽기 능력 및 쓰기 능력)
- 4) 제시문 (다)는 글쓴이가 직접 경험한 일, 그리고 고사(故事)에서 성찰과 교훈을 이끌어 내는 에세이다. 학생이 이 글에서 글쓴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교훈의 핵심을 정확하게 읽어 낼 수 있는가?(사실적 읽기,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 창의적 읽기) 그리고, 문제의 요구에 따라,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핵심 내용을 적절히 적용하여 해석할 수 있는가? (성찰과 정서를 위한 글쓰기)
- 5) 논술 과정에서, 제시문에 나와 있는 개념 및 어휘, 그리고 고교 교육과정을 통해 배운 개념 및 어휘들 - 앎, 진리, 주제, 대상, 반성, 성찰 등 -을 적절히 사용하면서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가?

[평가기준]

<p>* 배점 기준 : 어문규범 10점+내용 40점=50점</p> <p>* 어문규범 : 맞춤법, 띄어쓰기, 부호, 문장의 호응관계 등</p> <p>* 내용 : 문항의 요구사항 충족 여부, 논리 전개 등(아래 사항 참조)</p> <p>1) 최상(最上)</p> <p>① 제시문 (가)를 통해, 문자와 책(텍스트)을 통한 '앎'이 '현실'의 모방이나 반영에 불과한 것임을 추출하고, 이를 제시문 (다)의 해석에 충실히 적용했을 때('앎'이라는 어휘 대신 '인식'이나 '진리' 등등을 적절히 활용해도 좋음)</p> <p>② 제시문 (나)를 통해, '고정관념'을 왜 극복해야 하는가를 적절히 추출하고, 이를 제시문 (다)의 해석에 충실히 적용했을 때</p> <p>③ 제시문 (다)의 이야기에서 두 가지 일화를 통해 '참된 앎=자기 현존에 이르는 앎'이 무엇인지를 이끌어 내고, 그와 동시에 문자나 책을 통해 익힌 '앎'이 일종의 '고정관념'임을 부끄러워하고 반성하는 성찰적 태도를 이끌어 냈을 때.</p> <p>④ 제시문 (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고등학교 교과과정의 '플라톤' 부분에 나오는 '이데아론'이나 '동굴의 비유'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①, ②, ③을 해결했을 때</p> <p>⑤위의 ①~⑤의 내용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어휘와 개념, 명료하고 논리적인 문장, 그리고 어문규범을 정확히 지킨 답안.</p> <p>2) 상(上)</p> <p>위의 ①~⑤중 ④,⑤을 제외한 ①~③의 내용이 충실하게 작성되었을 때</p> <p>3) 중상(中上)</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④의 내용이 서술되고는 있으나 그 내용이 미흡하거나 논리적으로 설득력을 얻지 못할 때 - '자기 현존에 이르는 앎'을 제시문 (가)에 나오는 문장이나 어휘를 단순히 그대로 옮겨 쓰고, 제시문 (다)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였을 때 - '고정 관념'의 문제점 혹은 극복방안을 제시문 (나)에 나오는 문장이나 어휘를 단순히 그대로 옮겨 쓰고, 제시문 (다)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였을 때 <p>4) 중하(中下)</p> <p>①~④의 내용 중 답안에 전혀 쓰지 못한 부분이 있거나 썼더라도 엉뚱한 내용으로 작성했을 때</p> <p>5) 하(下)</p> <p>①~⑤중 어느 항목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였거나, 작성한 논술문의 분량이 너무 적어 채점의 근거로 보기 어려울 때</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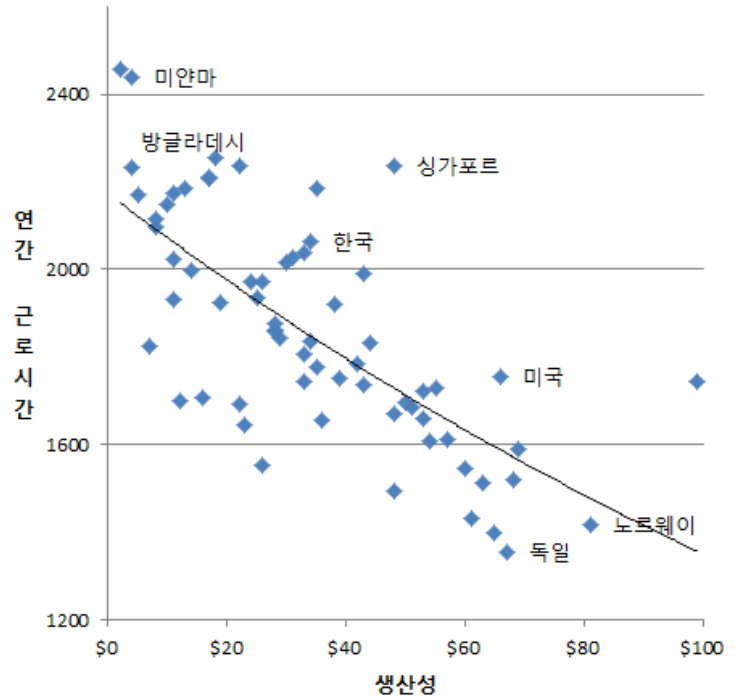
【문제 2】 아래의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50점)

(가) 아래의 <그림 1>은 국가별로 근로자 한 명이 일 년에 평균적으로 몇 시간 일하는지를 측정한 연간 근로시간과 각 나라 국민의 생활수준을 가늠해볼 수 있는 1인당 국내총생산의 관계를 보여준다. <그림 2>는 국가별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과 생산성의 관계를 보여준다. 여기서 생산성은 근로자가 1시간 동안 일해서 생산한 재화를 시장가격으로 표시한 값이다. 아래 자료들은 모두 2017년의 자료이다.



자료: 펜 월드 테이블 (<http://ourworldindata.org>)

<그림 1>



자료: 펜 월드 테이블 (<http://ourworldindata.org>)

<그림 2>

(나) 생산성이란 생산 과정에서 투입된 자원 대비 산출된 생산량이 어느 정도인가를 대변하는 척도이다.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를 생각해본다면, 생산성이란 근로자가 한 시간 동안 일을 했을 때 따르는 경제적인 보상이다. 단순한 예로, 제빵사가 한 시간 동안 몇 개의 빵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측정하여 제빵사의 생산성을 측정해볼 수 있다.

(다) 한 나라 국민의 생활수준은 1인당 국내총생산으로 측정하는데, 국민의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 경제 성장은 노동(인적자본), 자본, 자연 자원과 같은 생산 요소의 양적인 증가와 질적인 향상, 그리고 기술의 진보에 의해 이루어진다. 생산 요소의 투입이 늘어나면 생산량이 증가하고, 근로자의 전문성 향상과 같은 질적 변화도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 최근에는 기술의 진보가 경제 성장의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발명이나 발견과 같은 기술의 진보는 생산성 향상은 물론 새로운 상품의 개발로 이어져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

(라) 한 나라의 경제 규모와 소득 수준을 가늠하는 경제 지표인 국내총생산은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생산’을 강조하던 1930~1940년대에 탄생하였다. 하지만 국내총생산이 삶의 질 수준이나 소득 불평등의 정도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되면서, 고용, 여가, 환경, 행복, 건강 등 다양한 삶의 질을 반영한 새로운 지표들이 제시되고 있다. 영국의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국내총생산의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측정 도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 라고 제안하였다.

(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의 국내총생산은 1조 7,468억 달러로 34개 회원국 중 여덟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1996년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할 당시보다 그 규모가 세 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이러한 양적인 성장과 달리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들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2016년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에서 한국은 조사 대상 38개국 중 28위에 머물렀다. ‘더 나은 삶 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을 대상으로 소득, 주거, 일자리의 질, 교육, 환경, 건강, 삶의 만족도, 안전, 일과 삶의 균형 등 11개 부문을 평가하여 나라별 삶의 질을 가늠하는 지표이다. 조사 결과, 특히 한국인은 일과 삶의 균형을 찾지 못했으며 시민 간 신뢰와 유대감이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 2】 제시문 (가)의 <그림 1>과 <그림 2>에 나타난 연간 근로시간, 1인당 국내총생산, 생산성 간의 관련성을 제시문 (나)와 (다)를 참조하여 설명하고, 제시문 (가) ~ (마)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국민의 삶의 질을 지금보다 더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시오. (1,000자 내외)

[문항해설]

- 이 문항은 통계 자료를 가지고 양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 이 문항은 제시문 (가)에서 제공된 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하고, 경제성장에 있어서 생산성의 역할에 대해 이해하는지 확인한다. 또한 제시문 (가)~(마)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 위해서 기술 진보를 통한 생산성 향상, 노동시간 단축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 양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는데 사용된 기초 자료는 Penn World Tables 가 수집하고, our world in data(<http://ourworldindata.org>)에서 제공하는 국가별 연간 근로시간, 1인당 국민총생산, 생산성 자료를 재구성 하였다.
- 제시문 (가)의 <그림 1>은 국가별로 근로자 한 사람의 연간 근로시간과 1인당 국민총생산 간의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생산요소 중 하나인 노동투입량(연간 근로시간)이 늘어나면 그 나라의 총생산이 늘어나고 이와 함께 소득 수준(1인당 국민총생산)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림 1>은 이와 반대의 현상을 보여준다. 본 문제에서는 <그림 2>의 정보를 참고하여 연간 근로시간과 소득 변수에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3의 원인(생산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 제시문 (가)의 <그림 2>는 국가별로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과 1시간 노동에 따른 생산성 간 부(-)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이는 동일한 양을 생산하고자 할 때 생산성(시간당 생산량)이 높을수록 투입해야 하는 총 노동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문제에서는 노동시간과 생산성 간 부(-)의 상관관계를 이해하여, 생산성이 높은 경우 적은 노동투입으로도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지 평가하고자 한다.
- 제시문 (나)는 생산성의 개념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 제시문 (다)는 경제 성장을 위한 주요 원동력이 생산 요소의 양적인 증가와 질적인 향상, 그리고 기술적 진보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라는 정보를 제공한다.
- 제시문 (라)는 생활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국내총생산 지표의 한계를 설명한다.
- 제시문 (마)는 삶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대안 지표 중 하나인 더 나은 삶 지수에 대해 소개한다.

[평가기준]

- 1) <그림 1>에서 두 변수 간의 관련성을 정확히 이해하였는가 (15점)
소득이 높은(낮은) 국가일수록 근로시간이 적게(많게) 나타나는 배경에 국가간 생산성 격차라는 원인이 존재함을 설명할 수 있음 : 상
두 변수 간 음의 관련성만 제시함 : 중
두 변수 간 관련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함 : 하
- 2) <그림 2>에서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정확히 이해하였는가 (15점)
생산성과 근로시간 간의 음(-)의 상관관계를 설명할 수 있음 : 상
두 변수 간 관련성을 제시하지 못함 : 하
- 3) 제시된 자료의 해석을 바탕으로 장시간 근로가 삶의 질은 낮추는 원인임을 이해하고 있는가 (10점)
제시문 (가)와 (마)의 내용을 근거로, 한국 국민은 높은 소득 수준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근로로 인해 낮은 삶의 질을 경험하고 있음을 설명함 : 상
제시문 (가)와 (마)의 내용을 근거로, 일과 삶의 균형을 찾지 못하여 삶의 질이 낮음을 설명함 : 중
제시문의 내용을 활용하지 못하고, 삶의 질 저하의 원인을 설명하지 못함 : 하
- 4)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생산성 향상의 방안을 기술할 수 있는가 (10점)
제시문 (다)의 내용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향상하는 방안을 제시함 : 상
제시문을 활용하지 못하고, 생산성 향상에 대한 대략적인 방향을 제시함 : 중
생산성 향상 이외의 다른 방안을 제시함 : 하